전법 일기

법음(法音), 가을 하늘에 울리다

지난 10월 25일 토요일 나는 영주 부석사로 향했다. 의상 대사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큰 법석에 초대받은 것이다.

부석사 야외무대 위 먼 산의 능선을 병풍 삼아 의상 대사의 괘불이 모셔지고 그 앞에 법음(法音)이 울려 퍼졌다. 찬란한 햇살과 가을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세속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었다. 붓다볼(Buddha Bowl)의 맑은 울림이 부석사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 때, 나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깊은 환희심에 잠겼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순간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가피였다. 행사를 준비하며 겪은 작은 불편함이나 피로는 그저 미소로 녹아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가을빛 속에서 울려 퍼지는 붓다볼의 소리는 이미 완전했다. 그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 나가 부석사의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들의 가슴에 스며들고 있었다. 붓다볼은 깨달음의 종소리였다. 그날의 울림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흔드는 수행의 진동이었다. 한 분, 한 분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합장한 손끝에 신심(信心)의 떨림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소리는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법(法)이라는 것을. 함께 연주한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명상지도사 선생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붓다볼을 울리며 법회의 의미를 깊이 새겼다. 각자의 볼이 내는 소리는 다르지만 울림의 목적은 하나, 부처님의 법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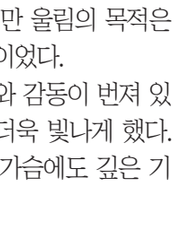
연주를 마친 뒤 서로의 눈빛에는 감사와 감동이 번져 있었고, 그 마음이 부석사의 가을 하늘을 더욱 빛나게 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슴에도 깊은 기쁨과 원력이 일었다.

파란 하늘 아래 법음이 산자락을 따라 퍼져 나가며 대지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그 진동 속에서 '이것이 바로 전법이구나'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말로 전하는 법보다 소리와 울림으로 전하는 법이 더 멀리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붓다볼의 여운이 내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신 연민과 자비의 파동이었다. 이미 세운 원력, 그 길 위에 내가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붓다볼과 함께 법을 전하는 이 길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그 울림은 나와 함께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법음은 사람의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 소리의 진동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고통을 녹이고 희망을 피워 낸다. 의상 대사의 탄신 1400주년이라는 위대한 법석에서, 나는 그 울림을 다시 새기며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에 자비의 파동을 전하고 있다.

붓다볼의 울림은 멈추지 않는다. 그 소리가 머무는 곳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피어나고, 그 진동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부드럽게 깨어난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나는 그 울림과 함께 오늘도 전법의 길을 걷는다.



김경숙 (사)싱잉볼치유의소리 대표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㉑ 단제 선사 황벽

선이 아니라 선사가 없을 뿐

바이오테크닉은 색법 위주로 흐르는 것이라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옛 선사들의 기연(機緣)을 곰곰이 읽다 보면 색법과 심법이 둘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오늘 우리 뺨에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 반대편 뺨도 돌려 대는 아량이 생길 것이다. 우리 눈의 허물이 벗겨지면 실상의 진면목 앞에 거짓은 사라지고 올바른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기에 일척안(一隻眼)이 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기묘한 신기술에 현혹돼 헛된 꿈을 꾸면서!

〈벽암록〉 11칙에 의하면, 황벽은 부처와 조사의 커다란 기용을 모두 손안에 넣은 선사다. 그는 우주의 온갖 생명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또한 대수롭지 않은 한마디로 천하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황벽의 일거일동은 족쇄와 형틀을 부수었다.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는 선사의 풍모를 보인 것이다. 황벽을 따라 배우다 보면 어느덧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또 말하는 것마다 진리를 제창하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한때 황벽은 '추행사문(麤行沙門)'으로 불렸는데 그 내력은 이러하다. 당 헌종(憲宗)의 둘째 아들은 젊은 시절 풍찬노숙의 삶을 살았다.

그는 조카인 무종(武宗)의 핍박을 받다가 절집으로 몸을 피해 지내게 됐으며, 그 시절 절집에서 그의 이름은 대중(大中)이었다.

대중 사미는 향엄지한(香嚴志閑)의 문하에서 삭발을 한 후, 이리저리 행각을 하다가 염관(鹽官)의 회상에 머무를 때 황벽을 만났다. 황벽의 염불은 심금을 울리는 깊이가 있었다. 그러나 직지인심의 견처를 밝히는 선사에게 염불은 어딘지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사미였던 대중은 이를 두고 황벽에게 시비를 걸었다.

"부처에게도, 법에도, 승가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불은 해서 무엇 하시려나"라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황벽은 대중의 뺨을 갈겨 버렸다. 대중이 이를 두고 거친 사람이라고 투덜거리자 황벽은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뺨을 때렸다.

대중 사미 뺨 갈긴 추행사문

족쇄와 형틀 부순 일거일동

오늘날 우리 일깨우며 단제해

대중 사미는 훗날 선종(宣宗) 황제로 즉위했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선종의 부름에 황벽은 궁궐로 입참했다. 선종은 옛 기억을 되살리며 황벽에게 성질 괴팍한 추행사문이라 이름을 내린다.

그때 상공으로 있던 배휴가 황벽으로부터 뺨을 맞은 일로 인해 전생의 악업이 끊어진 공덕이 있었기에, 현재 제위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벽을 단제(斷際) 선사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주한 것이다.

황벽은 추행사문에서 단제 선사로 격이 상승한다. 〈무문관〉 2칙[百丈野狐]을 보면 황벽은 백장 선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임제 선사조차 황벽의 거친 솜씨에 세 차례 얻어맞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황벽은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라 칭찬을 받기도 했으며, 세상을 보는 '바른 안목[一隻眼]'을 지닌 사나이로 상찬됐다. 황벽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일깨우며 단제하고 있다.

황벽은 지금도 우리 귓가에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사가 없을 뿐(不道無禪 只是無師)이라고! 너희들은 모두 술지게미나 먹고 취해서 돌아다니는 놈들(汝等諸人 盡是噇酒糟漢)이라고! 황벽의 저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져야 한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이태원 참사 3년, 고통 지속되지 않으려면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어느덧 3년이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서 여전히 그날의 공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얼어붙은 채 남아 있다.

시민 159명이 숨지고 320명이 다친 그 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과거형이 되지 않는다. 참사 현장은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회적 참회와 연대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군가는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추모한다. 참사 직후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불교계는 그 기억을 '기도'로 위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오고 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웃종교 단체들과 함께 매년 이태원 참사 추모 기도회를 열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 현장 인근에서 천도재를 꾸준히 봉행하고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삼보일배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3년을 맞은 지금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유족 치유도, 재발방지책도 아직 미완이다.

참사와 마주하기를 꺼렸던 윤석열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뀌었고 국가 차원의 노력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제 기능을 하지 않던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올 6월에야 첫 진상 조사에 나섰다. 특조위에는 없는 수사권을 가진 검경 합동 수사팀은 7월에야 만들어졌다. 징계 시효 3년이 끝나기 전 감사해 달라는 유족의 간곡한 요청이 이제야 받아들여진 것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유족과 생존자, 그리고 구조대원이 겪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재하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이태원 4주기에는 같은 고통, 같은 울분이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 일타강사
BTN 불교TV에 다 있다!
모든 번뇌를 날려버릴 족집게 법문

본 매주 (화) 07:30 재 매주 (화) 19:30 / (토) 12:00
본 매주 (목)07:30 재 매주 (목) 19:30 / (일) 19:00
본 매주 (금)07:30 재 매주 (금) 16:00 / (일) 23:15
본 매주 (금) 08:30 재 매주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